

KIA '4위 불씨' 살리기

T 타이거즈 전망대

4위 키움과 6.5경기 차 양현종, 한화 원정 11승 사냥 안방서 삼성과 KT 상대

KIA 타이거즈가 '꾸준함'을 키워드로 4위 불씨 살리기에 나선다. KIA는 키움, LG, 두산을 상대했던 지난주 3승 3패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아쉬운 끝내기 패배와 함께 1~2점 차에서 승부가 갈리면서 3패가 쌓였다. 4위 키움과는 6.5경기 차. 아쉬움은 있지만 시작과 끝은 좋았다. 요키시를 앞세운 키움을 상대로 장단 19안타를 터트리면서 13~2대승으로 한 주를 열었던 KIA는 28일 두산전에서는 17개의 안타를 쏟아냈다. 특히 흐름을 바꾸는 홈런 4방이 나오면서 11~6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톱타자 박찬호가 1회부터 선두타자 홈런을 날리는 등 사이클링 히트에 3루타 하나 부족한 5안타 행진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황대인도 길었던 부진 탈출을 알리는 시원한 썬기포도 장식했다. 또 고종욱이 이적 후 첫 홈런을 기록했고 '최고 참' 최형우도 시즌 12호포를 만드는 등 KIA 타선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꾸준함이 숙제다. 뜨거웠던 타격 뒤에는 답답한 공격도 있었다. KIA는 25·26·27일 3경기에서 14안타로 3점을 뽑는 데 그쳤다. 박찬호와 나성범이 3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만들었지만 소크라테스, 박동원, 김선빈만 겨우 안타 행진에 동참하는 등 극과 극의 타격을 보여줬다.

이번 주 KIA는 한화 원정 이후 안방에서 삼성과 KT를 상대한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에 시선이 쏠린다. 양현종은 30일 한화전에서 11승 사냥에 나선다. 지난 7월 29일 SSG전에서 10승을 이룬 뒤 최근 4경기에서는 7.66의 평균자책점으로 2패만 기록하고 있다. 이번 등판 이후 선발 로테이션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김종국 감독은 지난 28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투구 후 양현종의 상태를 지켜보겠다. 체크를 한 뒤 한 번 쉬어줄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승혁이 대체 선발로 준비를 하고 있고, 9월 1일부터 엔트리가 확대되면서 선수단 운영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양현종의 휴식이 고려되고 있다. 타석에서는 박찬호와 황대인에 눈길이 간다. 박찬호는 28일 5안타를 쏟아내면서 시즌 타율을 0.291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10경기 타율은 0.385. 부지런히 나가면서 4개의 도루도 추가해 도루왕 싸움에 불을 붙였다. 현재 키움 김혜성이 33개로 도루 1위에 올라있고, 박찬호가 30개로 그 뒤를 쫓고 있다. 박찬호가 막판 스피드로 김혜성을 따라잡는다면 올 시즌 팀의 유일한 '타이를 홀더'이자 지난 2019년 이후 두 번째 도루왕이 될 수 있다. 침묵을 깬 황대인의 방망이도 관심사다. 지독한 부진에 빠져있던 황대인은 24일 키움전에서 4안타를 쏟아내면서 공격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후 3경기에서 안타는 없었지만 정타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28일에는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스리런도 장식했다. 7월 24일 롯데전 이후 한 달여 만에 기록된 시즌 11호포였다. 박찬호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황대인이 결정적인 순간 한방의 힘을 보여준다면 들쭉날쭉했던 KIA 타선에도 안정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30일 부천과의 원정경기를 통해 12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 사진은 앞선 35라운드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공을 쫓는 헤이스. <광주FC 제공>

광주FC, 12경기 연속 무패 노린다

부천FC 상대 K리그2 36라운드

광주FC가 적지에서 12경기 연속 무패를 노린다. 광주는 30일 오후 7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를 상대로 K리그2 2022 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12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하는 무대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엄지성의 페널티킥골로 1-0 승리를 거두면서 11경기 (6승5무) 연속 무패를 이었다. 이와 함께 광주는 20승 고지에도 선착했다. 승점 69(20승 9무 3패)가 되면서 2위 FC안양과는 승점 13점 차,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이끄는 이정호 감독은 "방심은 금물"이라면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조했다. 이정호 감독은 앞선 부산전 1-0 승리 이후 선수들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부끄러운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제골을 장식하고 상대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어렵게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였다. 무패행진을 이으면서 우승을 향한 8부 능선은 넘었지만,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다. 광주는 경기 종료 후술이 울릴 때까지 뜨거운 공세를 펼치면서 시원한 승리로 우승으로 향하겠다는 각오다.

공격의 핵심인 엄지성과 헤이스의 활약이 반갑다. 엄지성은 앞선 부산전에서 헤이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골로 연결하면서 시즌 8호골을 장식했다.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유도한 헤이스는 간결한 드리블과 크로스로 공격을 이끌었다. 여기에 '종양동 지단' 김중우도 오랜만에 선발로 그라운드에 서서 눈길을 끌었다. 김중우의 부드러운 볼터치와 날카로운 패스로 중원을 장악한 광주는 '주장' 안영규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로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부천은 14승 8무 10패(승점 50)로 4위에 자리하고 있다. 탄탄한 수비와 함께 압박, 역습 전개가 좋고 '젊은피' 박창준·조현택 '베테랑' 김호남·한지호 등 신구 조화도 부천의 힘이다. 또 올 시즌 FA컵 대결 포함 두 차례 안방에서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 하지만 상대전적에서 광주가 11승 5무 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부천이 최근 5경기 연속 무승(3무 2패)을 기록하고 있다. 상대전적, 최근 분위기에서 광주가 앞서 있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광주가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까다로운 부천을 상대로 무패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덱스컵 1타가 부족했다



임성재

임성재 PGA 투어 챔피언십 세플러와 공동 2위 상금 77억 매길로이 우승 241억 '잭팟'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2022 투어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역대 최고 성적인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임성재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우승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21언더파 263타)에 1타가 뒤지면서 스코티 세플러(미국)와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임성재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한국인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지금까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한국인 최고 성적은 2007년 최경주(52)가 남긴 5위였다. 투어 챔피언십에 벌써 네 번째 출전한 임성재는 언제나 특급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경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임성재는 준우승 보너스 상금 575만 달러(약 77억원)를 손에 넣었다. 임성재는 "솔직히 이번 대회에서는 5등 안에만 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등을 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14번 홀(파4) 더블 보기와 18번 홀(파5) 버디 사냥 실패가 아쉬웠다. 3라운드 잔여 경기 4개 홀을 치른 뒤 선두 세플러에 7타 뒤진 공동 4위(16언더파 194타)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임성재는 전반에만 4타를 줄여 우승 경쟁을 벌였다. 1~2타차로 추격하던 임성재는 14번 홀(파4)에서 그린을 놓친 뒤 병커샷 실수로 네 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 2타를 잃어 급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임성재는 15번 홀(파3)에서 티샷을 홀 2m 옆에 떨어뜨리면서 버티었다.



로리 매길로이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21언더파 263타를 쳐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번 홀(파4) 버디로 1타차 2위로 올라선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지 못해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투은 공력에 나선 임성재는 두 번째 샷이 그린을 살짝 벗어나 러프에 빠졌고 세 번째 샷은 생각보다 길게 떨어졌다. 5m 버디 퍼트는 아깝게 홀을 외면했다. 매길로이는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21언더파 263타로 역전 우승했다. 6타차를 뒤집고 대역전극을 연출한 매길로이는 2016년, 2019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페덱스컵 챔피언에 올랐다. 두 차례 우승한 타이거 우즈(미

국)를 밀어내고 페덱스컵 최다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PGA투어에서 최장일 6타차 역전패는 2017년 HSBC 챔피언십 때 더스턴 존슨(미국) 이후 5년 만이다.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3승을 올린 매길로이는 PGA투어 통산 22승 고지에 올랐다. 매길로이는 1800만 달러(약 241억원)의 엄청난 상금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다. 매길로이는 이번 시즌에 267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았다. 이는 PGA투어 시즌 최다 상금 신기록이다. /연합뉴스

콘테 감독, 손흥민 향한 변함없는 믿음

4경기째 골 침묵 더딘 출발에도 "케인과 함께 팀에 중요한 선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개막 4경기째 골맛을 보지 못한 손흥민(30)을 향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 콘테 감독은 29일 잉글랜드 노팅엄의 더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2-2023시즌 EPL 4라운드 노팅엄 포리스트와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뒤 기자회견

에서 "손흥민은 분별력이 있는 선수"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노팅엄전에 선발로 출전해 74분간 뛰었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6일 사우샘프턴과 EPL 개막전에서 도움 1개를 기록한 그는 개막 후 4경기째 골 침묵을 이어갔다. 지난 시즌 23골을 넣어 공격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지만, 올 시즌은 출발이 더디다. 결국 콘테 감독은 후반 29분 손흥민을 히사를리 송과 교체했고, 손흥민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벤치로 물러났다. 손흥민이 잠잠한 가운데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노팅엄을 2-0으로 꺾고 개막 후 4경기 무패(3승 1무)를 달렸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분별력이 있고, 최고이며,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만약 내 팀의 남편감을 찾아야 한다면, 손흥민 같은 사람을 고를 것"이라고 애정과 믿음을 드러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지금은 득점이 없어 괴로워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는 모든 경기에서 득점할 기회가 있고, 침착해야 한다. 우리는 그와 그의 팀원들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팀에 중요한 선수"라며 손흥민의 존재감을 언급했다. 세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끈 케인도 손흥민을 다독였다. /연합뉴스